

친애하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새해 새아침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빌며 또한 여러분의 꿈과 희망 그리고 모든 소원이 금년 한 해 동안에 모두 성취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온갖 역경속에서도 우리 건축문화와 협회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노고에 대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건축의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

Go on New Courage

김규태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Kim Gyu-Tae

돌이켜보면 지난 95년은 우리 건축계가 개혁과 새로운 위상찾기에 많은 정열을 쏟았던 한 해였습니다. 과거의 시행착오나 잘못들을 가려내어 깨끗이 씻어내고 시대의 조류에 편승한 재도약의 새 발판을 구축코자 모두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상치 못했던 여러 시련들로 우리의 그 같은 노력들은 미처 빛을 발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충격은 우리 건축의 지난 업적들을 묻어둔 채 피땀흘려 쌓아올린 우리 건축계의 위상을 일순간에 추락시켜 놓았으며, 그동안 국가건설의 주역으로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히 임해왔던 대다수의 건축인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시장개방에 따른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건설관리제도의 도입논의와 부실공사에 따른 처벌기준 강화로 우리 건축사들에겐 힘겨운 한해로 기억됩니다.

이렇듯 힘들고 어려웠던 95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몸이 건강해야 평균에 감염되지 않듯이 건전한 건축풍토 속에서 전문인으로서의 품위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때 어떠한 외부의 도전이나 시련도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의 우리 건축계 주변상황 역시 결코 낙관할 수 없기에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건축전문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직업적 소명을 다함으로써 우리앞에 가로놓인 시련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 위기를 한국건축의 새로운 위상을 창출하는 절호의 기회로 맞아야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조류는 문물은 물론, 인간의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지역간, 국가간의 교류가 더욱 가속화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우리가 모델이 없는 사회, 정형이 없는 세계를 맞고 있음을 말합니다. 정형이 없다면 스스로 길을 정하고 이를 개척해 나가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은 WTO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우리의 건설시장이 본격 개방되는 해입니다. 물밑듯이 밀려들어올 외국의 대형 자본과 선진기술에 맞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갑절이나 되는 땀과 차원을 달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미 우리 건축이 세계 곳곳에서 그 무한한 가능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선진건축과 경쟁하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 취약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는 보다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과 구조적 조정을 통해서 우리건축의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사의 노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불확실하더라도 눈앞에 일어난 사실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로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을 주목하는 투명한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래를 예측하며 현실을 적극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모두 분발하여 개개인의 능력을 총체적으로 발휘함으로써 한국건축의 비약적 발전에 주마가편의 효(效)를 가일층 제고할 것을 다같이 다짐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작년 우리는 협회창립 30주년을 맞아 이를 계기로 향후 30년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벌여왔습니다.

비록 지난 역사가 질곡과 기형발전의 다소 불만족스러운 역사일지라도 이를 거울삼아 이제부터는 새롭게

일신하여 건축사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회원간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롭게 30년을 출발하는 96년, 우리모두 과거의 시대순응적인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건축을 사랑하고 건축을 천직으로 여기는 전문인으로서의 양심에 입각하여 우리의 건축문화를 공명정대하게 선도하는 강력한 단체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저해하는 각종 모순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과감한 고발과 도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몰이해 되고 있는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 시킬수 있는 계몽과 홍보활동을 확대·강화하여 건축문화가 바로 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일년지계는 원단에 있다고 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사회 각 분야는 나름의 새해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결의를 새롭게 합니다. 개인은 물론이며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라 할지라도 자칫 타성에 흐르기 쉽고 자신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므로 새해는 그러한 기분을 일신하고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절호의 기회로 삼읍시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이를위해 현실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언제나 '가장 앞서가는 건축'을 창조해 내는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완수에 전력을 다해 땀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고결하게 가꾸어 온 우리들 건축사의 긍지가 새해를 기점으로 마땅히 보람으로 다가오리라 믿고 염원합니다.

아무쪼록 회원들 서로가 올해의 푸짐한 수확을 다짐하며 끊임없이 새바람을 일으키는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丙子年 元旦